

3·8세계여성의날... 광주시, 여성주권 실천 다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일 전일빌딩245에서 '빛의 혁명을 안수하라! 모이자 광장으로, 여성주권자의 힘으로!'를 주제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YWCA 등 여성단체 회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문화공연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여성권의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 올해의 3·8여성상 수상자로 '광주여성영화제'를 선정했다.

광주여성영화제는 10년 넘게 성평등·인권·연대 등 사회적 의제를 다뤘었다.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조명하며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이자 성평등 문화행사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전국 유일의 5개 자치구 전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이자 여성공무원 의사결정 참여율이 전국 2위인 성평등 선도도시"라며 "현장에서 헌신해 온 여성활동가들의 땀방울이 인권도시 광주를 '성평등 도시'로 완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광주·전남에 대한 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도시의 외연이 커지는 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여성과 가족의 삶

광주시, 기념행사 개최... 정책토론회·캠페인 통해 성평등 가치 확산
강기정 시장 "전국 유일 여성친화도시... 여성활동가 땀방울의 결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5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을 세심히 살피는 여성 정책의 규모와 깊이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3·8 세계 여성의 날의 상징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빵'과 인간다운 존엄을 상징하는 '장미'가 모두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고 '인 광주·전남'에서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질 좋은 일자리와 탄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부 문화공연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주제로 한 이슈 발언과 퍼포먼스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산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기념행사에 이어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정책토론회와 시민참여 캠페인이 이어진다.

오는 12일에는 광주시의원, 전문가, 학

동가들이 참여하는 3·8주간 정책토론회가 마련돼 여성정책 전달기구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여성친화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 16일부터 20일까지 자치구별로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노동권 보장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세계 여성의 날'의 상징인 장미를 꾸기며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다. /전광훈 기자

동가들이 참여하는 3·8주간 정책토론회가 마련돼 여성정책 전달기구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여성친화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 16일부터 20일까지 자치구별로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노동권 보장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세계 여성의 날'의 상징인 장미를 꾸기며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다. /전광훈 기자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이 5일 광주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있다. 사진=광주교육청 제공

광주·전남 교육통합 추진단 첫 회의... '속도보다 안정' 학생·학부모·교직원 '불이익 제로'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교육행정 통합추진단이 5일 광주교육청에서 첫 실무협의회를 갖고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자리다.

양 교육청 실무단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불이익 제로(Zero), 흔들림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속도보다 안정성 우선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진단은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통합 준비 과제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주요 쟁점과 추진 과제를 공동으로 점검·관리해 통합 전환기 행정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 통합추진단 윤양일 단장은 "이번 통합은 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대민 행정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변화가 서비스 저하나 지원 공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실무준비단 김치곤 단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광역 교육행정 통합인 만큼 대한민국 교육 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성공 사례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광주교육과 전남교육이 힘을 모아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광주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과 옥외 근로자는 낮에는 야외 업무, 밤에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발간한 정책브리프 제10호 '광주 폭염 및 도시열섬 시민인식조사 결과 및 대응방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일반시민 600명·옥외근로자 100명·취약계층 3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응답자 92%는 광주지역 폭염·도시열

'낮에는 야외근로·밤에는 전기료 부담'...광주 취약계층 폭염 노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폭염 대응 방향 정책집 발간

섬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88.8%로 분석됐다. 폭염의 원인은 기후변화(52.1%)가 1순위였으며 인공열 방출(30.4%), 불투수면 증가(25.3%) 등 도시 관리 요인도 중요한 원인으로 함께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건강 이상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61.3%로 높았으며 땀·피로감뿐 아니라

불면·수면부족 등을 호소했다. 폭염 피해에 따른 대책은 '특별한 행동 없이 휴식'(86.5%)이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 방문(19.1%), 119 연락(5.2%) 순이었다.

취약계층과 옥외근로자는 "낮에는 '야외 업무·활동으로 실내에 머물 수 없음'에 36.6%가 응답했으며 "밤에는 전기요금 부

담으로 병방기 사용할 수 없다"도 41.2%로 높았다.

폭염 대응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업장 대응 의무화 및 점검 확대'가 24.2%로 가장 높았으며 '야간 폭염저감시설 운영 확대'도 22.5%가 응답했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바람길숲, 이동식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광주시 등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무단 결제 사건이 물품 구매대행 과정에서 전달된 카드 결제 정보가 해킹되면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신용카드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결제됐다는 신고가 여수 4건, 순천 10건 등 총 14건 접수됐다.

여수·순천 카드 무단결제... 경찰, 해킹 정황 확인

여수·순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해자들이 해외 건강식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며 지인 A씨에게 카드번호 등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PC가 해킹돼

파일 형태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다.

해킹범은 이 정보를 이용해 물품을 결제한 뒤 판매자에게 지급된 결제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금을

가로채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대행사(PG) 시스템도 해킹해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여수와 순천에서 1억2000만원 상당으로, 대부분 결제는 취소된 상태다.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확인돼 전체 피해는 30여건, 3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원 기자

'여객기 참사' 잔해물 조사...희생자 유해 추정 물체 발견 지난달 2차 여객기 사고기 조사에 이어 두번째

1년 넘게 방치됐던 '12·29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물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또 참사 희생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5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과수대)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제3차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물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도중 과수대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형 자루에 담긴 잔해물을 선별하던 중 희생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3.5cm 물체 1점을 발견했다. 발견된 물체는 DNA 검출 및 정밀 감정을 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2차 여객기 사고기 잔해물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뼈 1점이 발견됐다. 최근 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뼈는 희생자의 유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현재 발견된 뼈가 유해인지 여부는 국과수 감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난주 발견된 유해는 실제 유해로 확인됐다"면서 "유해가 발견된 대형 자루 속은 유류품, 음식물 찌꺼기 등 온갖 물품이 섞여있다. 향후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 또한 높다고 생각하며 초기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유가족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사조위는 지난달 12일부터 노면에 흩어져 있던 기체 잔해물을 컨테이너 4동에 옮기고 이 과정에서 유류품 등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주요 단서를 함께 수집하고 있다. /송현근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